사람 이순신을 만나다.

36 5일 한 사람이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은 자기와의 대화 시간인 일기를 쓰는 일이다.

난중일기를 통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충무공, 이순신보다는, 사람, 이순신으로 만날 수 있어 사춘기로 마음의 혼돈을 겪고 있는 나에게 무엇보

다 더 값지게 다가온다.

긴박한 전쟁 상황에서도 자신과의 대

화를 끊임없이 하고 반성하는 이순신

장군님을 통해 나는 내 자신을 되돌아

본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일 년 전, 조

선 조정은 일본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을 파악하고는 변방을 강화하기 위해

장수가 될 만한 인재를 찾는다.

이때 유성룡의 도움으로 전라좌도수사

에 발탁된 이순신은 무기를 정비하고
거북선을 제작하는 등 침입에 대비하기
시작한다.

난중일기의 탄생은 임진년 1월 1
일부터 일기가 시작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왜군의 침입을 알기 위해
이순신장군님 진영에서 보고 들은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을 남기기 위해 7
년 동안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내용은 주로 전쟁의 출동 상

황, 부하 장수의 보고, 공문 발송

등이지만 가족에 대한 걱정과 진중 생

활에서 느끼는 울분과 한탄 등의 심정

도 곳곳에 남아 있어 사람, 이순신

장군님을 알 수 있었고 나도 조선시대

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이

책을 통해 얻게 되었다.

요즘 나에게 엄마의 말은 모두 잔소

리와 듣기 싫은 잔소리로만 들린다.

하지만 1593년 5월 4일 작성된 일기에 '오늘 어머니 생신이지만 토벌 때문에 오래 사시기를 축수하는 술잔을 올리지 못하니 평생 한이 남는다.' 또, 원균의 모함 때문에 백의종군 길에 오르던 길 어머니의 부고를 들었을 때 내 가슴도 멍해졌다.

적과 생사를 가르는 속에서도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순신 장군님의 모습이 대목이 곳곳에서 느껴질 때 같

은 성을 가진 여자로서 엄마를 한 여
자로 이해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한
없이 부끄러워진다.

그리고 '효'에 대해 생각해 본다.
효는 '부모를 잠 섬기는 도리' 외
에 나라에 충성하고 후세에 이름을 떨
치는 것이라는 것을 이순신 장군님을
통해 배워본다.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가족
을 사랑하시는 이순신장군님 모습 속에

서 아 빠 가 늘 말 씀 하 시 는 ‘ 가 화 만 사
성 ’ 이 라 는 말 이 이 제 는 정 확 히 머 리 와
가 슴 에 그 려 진 다 .
가 족 을 사 랑 하 는 마 음 은 고 스 란 히 백
성 들 에 게 도 전 해 졌 다 .
을 미 년 4 월 30 일 일 기 에 관 리 들 의
부 정 부 패 에 엄 격 하 셨 고 , 군 사 가 백 성 들
에 게 피 해 를 입 히 면 직 접 나 서 서 그
피 해 를 보 상 해 주 고 피 해 를 준 군 사 에
게 는 무 거 운 처 벌 을 내 려 일 벌 백 계 하 였

다 .

이 순신 장군님의 뛰어난 지휘관의 모
습과 리더십, 인간적인 모습도 같이
느껴진다.

이 순신 장군님의 모든 마음에 에너지
의 기본은 사랑에서 시작 되었다는 것
을 이 책을 통해 느끼면서, 사람,
이 순신을 보는 눈과 마음이 생긴다.

수군의 폐지하려는 조정의 움직임에
맞서 ‘신에게는 아직 열 두 척의

배가 있으니 사력을 싸우면 승산이 있다’

명량대첩에서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싸우면 반드시 죽는다.’

노량해전에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님의 용기 속에 언제나 갖고 있었던 가족에 대한 사랑, 백성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 나라에 대한 사랑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 뒤에 숨어져 있는 사랑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기에서 시작된 것 같다.

항상 365일 사람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계획대로 살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쓴다면 분명 세상을 대하고 보는 눈은 달라진다는 것을 '난중일기'를 통해 배웠다.

조국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적과 맞서 싸웠던 이순신 장

군님 그 뒤편에는 하루, 하루 최선을

다했던 이순신 장군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였던 것은 아닐까?

사춘기일까? 왜 공부는 해야 할까?

어지럽던 마음을 내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하다보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 어 지 더 라 도 이 제 는 당 당 히 맞 설 수

있 는 용 기 를 이 책 을 통 해 얻 었 다 .

오 늘 엄 마 의 말 도 내 마 음 도 이 제 는

사 랑 으 로 채 울 수 있 을 것 같 다 .